

## 캐나다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

### 파트 1

1962년 12월 11일 토론토 도심 동쪽에 위치한 돈 감옥에서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사형이 실행되었는데 이 때 살인범인 루카스와 터어핀 두 사람이 연달아 교수형에 처해졌다.

10년 전인 1952년 12월에 잭슨과 슈찬 두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진 곳도 돈 감옥이었다. 이 두 사람이 밤 12시에 교수대로 향하고 있었던 그 때 돈 감옥 바깥에서는 술취한 대중들이 서성거리며 사형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상승효과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고 자축하면서 살인자들의 죽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적으로 승인된 의도된 살인인 사형제도는 강력한 정서적 토템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금지된 살인행위에 상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이 매우 감정적이며 단언적이고, 실제로 사형이 실용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교수형 제도의 부활에 대한 주장은 그 주제가 얼마나 감정에 치우치게 만드는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주장은 최근 여러 건의 경찰 살인사건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그들은 사형제도가 이 문제들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살인사건들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자. 폭력 및 범죄기록이 없는 한 십대가 길가에 있는 경찰차의 측면을 갑자기 들이받아 경찰을 죽이고 나서 자신도 총으로 자살을 했다. 또 다른 십대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내가 누군가를 총으로 쏠 것이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서 처음만난 경관을 쏘았고 그 총으로 자기 자신도 쏘았다. 한 남자가 사전에 문자를 통해 경찰관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고 경찰관을 죽인 다음 그 스스로 자살했다. 한 남자는 절대 살아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는 일반인과 경찰관 한명씩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나서 그를 잡기 위해 벌어진 총격전에서 또 다른 경찰관을 죽이고 자신도 사살당했다.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형제도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사형제도가 밖에 나가 죽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가? 사형제도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지 사형제도의 폐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으며 따라서 교수형 제도를 부활시키면 우리 사회를 혼란 속에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다. 사형제도와 살인 발생률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그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형이 존재하지 않는 주의 살인율이 사형제도를 실행하는 주의 살인율보다 조금 더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근 경찰 살인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것이 캐나다에서 경찰 살인에 대한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래로 경찰 살인이 증가해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실 일년에 11 명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경찰관이 살해되어진 해인 1962 년은 교수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되었던 해이다. 교수형이 없어진 그 다음해에는 단 한명의 경찰관도 살해되지 않았다. 캐나다에는 잠재적인 경찰 살인자들로 가득차 있으며 그들의 살인은 사형제도로 억제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무언가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억제할만큼 충분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교수형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만큼이나 감옥에서 25 년간 갇혀있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다. 물론 이 두가지 위협은 자기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확신하는 범죄자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실형은 범죄의 억제에 대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사형 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실수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캐나다에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복역을 해야했던 유명한 세가지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도널드 마샬은 살인죄를 쓰고 감옥에서 11 년간 복역을 했는데 그 후에 그 살인사건의 진범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만약 도널드 마샬이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해 교수형에 처해졌었다면 이런 경우 그에게 어떤 배상을 해 줄 수 있겠는가?

## 파트 2

정서적인 신념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예방책이 될 수 없다. 사형제도의 존재, 폐지 그리고 재도입이 살인율에 두드러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어져 왔다.

살인율과 폭력범죄율 그리고 일반 범죄율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실업율의 증가는 정신질환, 자살 그리고 배우자폭행, 아동학대, 강도, 살인과 같은 범죄들의 상승을 동반한다. 실업이나 가난이 사람들을 범죄자가 되도록 몰고 가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 실직상태에 놓여지게 된사람들은 심각한 중압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젊은 남성이며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게 된다면 -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것 외에 달리 할일이 없지 않은가? - 경찰들로부터 자주 받게되는 “괴롭힘”과 그들의 중압감이 섞여져 결국 그들을 경찰혐오자들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과 실직이 가져다주는 중압감을 경찰의 주의를 끌지 않는 방법으로 견뎌낸다. 그러나 그렇게하지 못하는 불가피한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빈곤자와 실직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복역자들의 숫자도 증가하게 된다. 사회는 성실하게 자기 자립하려는 사람들을 돕는데 필요한 적은 금액의 재정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교도소에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재정을 지급할 수는 있다. 캐나다는 서구 국가들 중에서 낮은 범죄율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나라로 유명하다.

일정 시간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갱생보다는 모욕감과 좌절을 주도록 고안된 교도소의 환경으로 인해 범죄의 길을 선택하도록 고무되어진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가 지금보다 더 가혹해 저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들은 교도소들이 충분히 음산하지 않으며, 충분히 잔인하지도 않고, 수감자들에게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교도소는 냉정하고 분노에 찬 범죄자들을 양산시키기에 좀 더 효과적인 감옥을 제조하는 처방전을 만들고 있다.

나머지 우리들은 만약 우리가 어떤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조치가 지혜로운 결정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결국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풀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정당하고 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가 당했던 처우로 인해 복수를 원하며 분노와 괴로움으로 가득차 있으며, 교도소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그를 감옥에 보낸 주정부를 포함한 전 사회가 잔인함과 복수와 위선을 근간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게된 사람인가?

모든 부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잔인한 교도소의 환경과 교수형에 대해서 아무리 엄숙하게 정당화 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고 있는 메세지는 단순하다. : 폭력과 무력은 문제들을 다루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이다. 폭력이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의 정부또한 그들이 가진 힘과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보내는 이 메세지가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형을 당하게 될 사람의 범죄가 대중매체를 타고 공개되면 실제적으로 그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모방범죄가 양산된다고 한다.

어떤 살인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그정도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머지 우리들은 그들을 병이든 일탈자로 우리들로부터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 그들이 우리로부터 아주 멀지 떨어져나가면 그 공포도 일부분 사그러진다.

하지만 더 공포스러운 것은 한 사회가 살인을 위해 냉혈하게 그 자신을 조직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결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기계를 설치한다. 배신원들과 판사들, 목수와 전기기술자, 의사와 성직자와 교수형집행을 비롯한 그렇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역할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그들의 참여에 대해

그들에게 돈을 준다. 모든것이 하루에 끝나는 일이다. 이런 종류의 냉혈 살인이야말로 무엇보다 공포스러운 것이다. 특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우리 스스로가 그 대안들을 취하기를 거부한다면 말이다.

Translated by Choi, Sun Young / Kang, Jun Ho / Choi, Ji Yeong